

서 평

신윤환 저. 2001. 『인도네시아의 정치경제: 수하르토 시대의 국가, 자본, 노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이론과 사실, 설명과 기술 사이에서

김형준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화인류학과 조교수

I.

팔십년대 후반 이후 해외 지역 연구를 행하는 연구자들의 모임이 본격적으로 결성되기 시작했다. 외국과의 교류의 확대, 지구화, 세계화 담론의 확산과 같은 변화는 지역 연구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으며, 지역 연구에 대한 연구비 지원 확대, 지역 연구 전문 대학원의 설립은 이러한 관심이 학계에 반영되었음을 보여준다. 경제 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지역 연구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고, 그 열기 또한 약화되었지만, 90년대에 진행된 변화는 지역 연구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해외 지역에 대한, 특히 우리나라와 역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지 않았던 지역에 대한 연구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이지만 학계와 일반인들 사이에서 필요한 혹은 생각할 수 있는 연구 영역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평자가 인도네시아를 연구대상으로 선택했던 80년대 후반, 비인류학 전공자와의 대화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질문은 ‘인도네시아를 연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었다. 경제적 실용성이라는 측면을 무시하려 했던 상황에서 평자가 할 수 있던 대답은 흥미롭기 때문이라는 식의 개인적 선호 혹은 인간의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는 식의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의 것이었지만, 이러한 대답이 사람들을 쉽게 납득시킬 수 있어 보이지 않았다. 연구 대상에 대한 질문은 곤혹스러움을 가져다주었지만 동시에 지역 연구와 관련된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했다. 즉, 다른 국가를 대상으로 한 지역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 인류학자들의 지적처럼 비교론적 시각을 습득하고 이를 통해 자기 문화에 보다 객관적이고 비판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것인지, 다른 국가와의 교류 과정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올 자료를 획득하기 위한 것인지, 혹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이해를 구하기 위한 것인지와 같은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할 기회가 주어졌다. 지역 연구와 관련된 자성의

기회는 평자가 유학했던 호주에 도착하자 사라져 버렸다. 인도네시아의 인접 국가로서 동남아와 관련된 연구 전통이 확립되어 있던 호주에서 인도네시아 연구, 나아가 지역 연구 자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구의 학계에서처럼 현재 한국의 학계에서 지역 연구의 당위성을 의문시하지 않는 경향이 정착되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지만, 지역 연구가 90년대 이전과는 상이한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음은 부정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평자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제한적으로나마 확인될 수 있는데, 지난 몇 년 동안 인도네시아를 연구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은 경우는 존재하지 않았다.

해외 지역 연구가 제한적으로나마 당연시되고, 또한 경제 위기 이후 그 것에 대한 관심이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판된 신윤환 교수의 저술은 인도네시아와 관련된 연구뿐만 아니라 지역 연구와 관련되어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는 필자가 '당시 [80년대 중반] 한국 유학생으로는 일탈적인(xiii)' 인도네시아를 연구 대상으로 선택하였으며, 90년대 이후 동남아시아 지역 연구의 활성화에 커다란 기여를 했던 일 세대 연구가이기 때문이다. 논문집 형태의 책에 포함되어 있는 여섯 편의 논문 모두는 인도네시아와 관련된 문제들을 취급하고 있지만, 각각의 논문에는 지역 연구의 정체성과 관련된 필자의 고민이 드러나 있다.

글의 서문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필자는 지역 연구가 진행될 수 있는 두 가지 접근 방법, 즉 서술적 지향과 이론적 지향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지역 연구가 중 한 편에서는 역사적 사건이나 구체적 사실을 수집, 서술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 다른 한 편에서는 비교론적 시각에서 엄격한 분석방법을 동원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이론의 확립과 수정을 위한 자료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필자는 서술 지향적 접근이 지역 연구에 있어서의 편협성과 방법론적 후진성을 가져온 요인이라 평가하며 (vi), 지역 연구가 비교론적 시각과 이론적 관심을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필자의 문제 제기는 지역 연구와 분과 학문의 관계에 대한 논의와 같은 궤에 놓여 있다. 지역 연구가들이 공유하는 공통점을 특징한 지리적 공간으로 국한시킬 경우 지역 연구는 각 학문의 이론적 문제를 검증하기 위한 비교 자료를 제공하는 작업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와 달리, 특정한 국가 혹은 지역적 특수성에 대한 총체적이고 균형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할 경우, 지역 연구는 비교론적 접근을 위한 자료 제공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상이한 시기에 상이한 주제를 대상으로 하여 집필된 여섯 편의 논문에는 개념적인 수준에서 명백하게 대비되는 두 경향이 구체적인 연구 과정에서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는지, 또한 사실과 이론, 기술과 설명 사이에서 지역 연구가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이 무엇일 수 있는지의 문제가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다.

II.

수많은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도네시아를 특징지을 수 있는 단어는 다양성이다. 수 백여 개의 종족과 언어, 수렵채집·화전·수도작과 항공 산업이 공존하는 경제 구조, 힌두·불교·이슬람·기독교·유교가 공존하는 종교적 복합, 모계·부계·양계가 공존하는 중층적인 친족 구조 등과 같이 상이한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구조가 인도네시아라는 ‘상상의 공동체’ 내에서 상호작용하며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국가가 건립된 20세기 중반 이래 다양성의 통합은 인도네시아인들에 의해 절대절명의 과제로 인식되어 왔다.

최근의 인도네시아 상황은 다양성이 내재하는 위험이 어떤 방식으로 표출될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수하르토 퇴진 이후의 종족적·종교적·계급적·지역적 갈등으로 인해 수 천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으며, 아직도 많은 지역에서 일상적인 삶의 회복은 요원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상황은 수까르노 집권기의 모습과 표면적인 유사성을 띠고 있다. 집단간의 갈등,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피해는 오륙십 년대를 통해 인도네시아가 경험했던 문제였다. 이러한 혼돈 상태는 수 만 명에서 수 십 만 명으로 추정되는 대량 학살이 자행된 이후에야 진정될 수 있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정권을 쟁취한 수하르토 통치하에서 안정된 상태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삼십여년의 공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까르노 집권기와 최근 상황이 현상적인 유사성을 보이고 있음은 현재적 상황이 과거와의 연장선 속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수하르토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던 90년대 초중반기를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책은 흐르는 물 속이 아닌 한 걸음 떨어진 곳에서 그 흐름의 향방에 대해 검토해 볼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III.

이 책은 수하르토 집권기의 인도네시아 정치경제를 분석한 필자의 논문 중 여섯 편을 선정하여 재편집한 것으로서, 인도네시아 연구자들이 집중적으로 검토해왔던 자본, 자본가, 국가, 노동, 종교, 정치 체계와 같은 주제들이 두루 포함되어 있다. 논문 선정에 있어 필자가 중시한 다른 기준은 이론과의 연결성이다. 즉, 특정 이론의 설명력을 인도네시아 사례를 통해 검토하거나, 사례 연구를 통해 잠정적인 가설 도출을 시도함으로써 비교적 시각과 이론적 관심을 견지하고 있는 글들이 논문집에 포함되어 있다(vii).

논문집에 포함될 논문의 선정 기준은 앞서 지적된 필자의 견해, 즉 지역 연구가 지향해야 하는 방향과 일치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특히 흥미를 끄는 논문은 인도네시아의 민주화 전망을 담고 있는 마지막 장이다. 인도네시아

가 민주주의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담고 있는 이 글은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볼 때, 이론과 현실과의 괴리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수하르토의 독재 체제가 무너지고 민주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접하게 되는 이 논문은 사회과학의 이론이 내포하고 있는 한계를 검토할 신선한 재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1장에서 필자는 수하르토 체제하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출현한 자본가 집단의 기원과 그 형성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필자는 신흥 자본가들의 자본 축적 방식이 정치 권력자들과의 후원-수혜 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를 분석하기 위해 맑스의 원시 축적론에 기초한 '현대적 형태의 원시 축적'이라는 개념을 이용한다. 재벌기업 소유주와 그 후견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여섯 가지 유형의 자본 축적 양식을 유형화한 후, 필자는 그 작동 양상에 있어서의 변화를 추적하는데, 개인적이고, 은밀하며 초법적인 형태로부터 보다 초인격적이고 합법적인 형태로 전환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필자는 인도네시아의 자본주의가 원시적 형태의 축적기를 지나 서구식 산업 자본주의로 발전해 나가리라는 전망을 제시한다.

다양한 출처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한 40대 재벌 소유주와 그 후견인에 대한 표(14-15) 이론화 작업이 이론을 통한 이론의 재정립이라는 수준에서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토대에 기초하여 진행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인도네시아 자본가에 대한 기존의 연구와 비교했을 때, 이 자료의 독창성은 높이 평가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자료 분석과 관련되어 아쉬운 점은 자본 축적의 방식을 유형화하는 과정에서 40대 재벌 중 일부만이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정한 유형을 대표할 만한 일부의 사례만이 이용되었다는 점은 이해될 수 있을 문제이기도 하지만, 각각의 사례가 철저하게 비교분석되지 않음으로써, 자본가의 형성 및 자본 축적 과정의 특성을 보다 뚜렷하게 밝혀낼 수 있을 자료가 충분하게 이용되지 못했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2장의 분석 대상은 국가의 탄압 정책에 노출되어 있는 경제적으로 성공한 인도네시아 화인이다. 화인의 성공은 유가 급등과 급락이라는 세계체제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았는데, 전자는 국가 경제 및 재정 규모의 확대에 의한 자본 축적의 기회를, 후자는 민간경제 주도, 개방 경제로의 전환을 통한 외국인 투자가의 합작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경제적 성공은 정치적·문화적 영향력의 확대로 이어지기보다는 정치적 배제와 문화적 정체성의 약화를 초래했다. 이는 국가가 피폐된 경제를 재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화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권력에 도전할 자율적인 자본가 계급의 성장을 봉쇄할 필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반화인적 성향을 갖는 토착 사회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도 화인을 탈정치화시키고 이들에게 문화적인 탄압을 가하는 정책이 요구되었다.

화인 사회에 대한 필자의 분석은 종합적인 접근법, 즉 결정론적이고 단일변

인적 설명을 지양하면서,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사회 변동을 분석하려는(ix) 접근법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과 관련되어 아쉬운 측면은 합리적이고 주체적인 대응으로써 화인 사회의 변화가 검토되어야 한다고(43) 주장에도 불구하고, 화인들의 대응과 입장이 체계적으로 분석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적인 탄압을 받는 화인들의 집합적인 목소리를 보여줄 자료를 구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점은 명백하지만, 이들의 견해와 입장이 집중적으로 검토되지 않음으로써,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분석의 가능성이 축소되었다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된다. 또한,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순응의 교환이라는 주장이 이미 몇몇 연구가에 의해 제기되었음을 고려해보면, 화인 사회의 대응과 화인의 입장에 대한 보다 철저한 분석은 이러한 일반적 견해가 갖는 타당성과 한계를 검토하는데 있어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인도네시아의 정치경제 연구에 필자가 천착해왔음을 고려해보면, 3장의 연구 대상인 화인의 종교는 과격적인 주제라 할 수 있다. 화인들의 종교적 선호와 태도에 있어서의 변화를 분석하고 있는 이 글은 문화인류학적 연구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한다(ix). 필자는 수하르토 정권의 종교 정책으로 인해 화인의 전통 종교가 쇠퇴하였고, 화인들이 인도네시아의 지배적 종교인 이슬람보다는 기독교로 개종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종교 정책에 적응하여 종교조직, 의례, 교리를 재구성, 재해석하려는 노력이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장에 제시된 결론 중 상당 부분, 특히 화인들이 자신들의 종교를 일반적 종교 환경에 순응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종교적 믿음과 행동의 재해석이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은 인도네시아 종교를 연구해 온 인류학자들에 의해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것이다. 인류학자들에 의해 상대적으로 경시되어 왔던 화인의 종교적 변화를 대상으로 한 필자의 연구는 종교적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훌륭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 글은 지역 연구가로서의 필자의 관심과 시각이 보다 넓은 분야로 확대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역 연구에 있어서의 학문적 경계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4장과 5장은 노동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그 시각, 분석틀, 자료의 성격에서 대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산업화가 진전된 수하르토 치하에서의 노동 운동이 이전 정권에서보다 훨씬 덜 활성화되고 조직적이지 않은 현상에 대한 분석이 4장의 주제라면, 5장에서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서 전개되는 노사 관계가 검토되고 있다. 필자는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사회적 동원이 증대하고 노동 부문도 더욱 활성화한다는 맑스주의나 근대화론적 가설이 인도네시아에 적용되지 않음을 밝히기 위해 국가의 노동정책과 그것의 정치적, 역사적 맥락을 분석하고 있는데, 국가가 노동의 활성화와 조직화를 억압하고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이데올로기적·법적·물리적 방법을 효과적으로 동원하여 왔음을 지적한

다. 80년대 이후 강압적 노동 통제 방식의 한계가 노정되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인도네시아 노동 정책이 조합주의적, 자유주의적 방향으로 전화되는 모습을 찾을 수 있지만, 필자는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 정부의 억압성이 개선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필자는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국가의 이데올로기적·법적·물리적 억압 방식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억압의 관계를 구성하는 다른 축인 노동 운동 세력은 필자의 분석에서 커다란 주목을 받고 있지 않다. 동시장 구조와 노동 관행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경제적 조건이 설명되고 있지만, 이 자료만으로 노동 운동에 대한 노동자들의 입장과 태도가 적절하게 설명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노동 운동 세력이 중점적으로 취급되지 않음으로 인해, 노동자는 국가로부터의 강제와 현실적인 조건에 순응하는 존재로 비추어진다. 국가가 노동 운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던 점은 부정될 수 없으나, 노동자 혹은 노동 운동이 무조건적이고 소극적인 순응이라는 단일한 모습을 띠고 있다고 가정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이는 5장을 통해서도 드러나는데,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일방적으로 탄압 받는 존재가 아니며, 집합적인 수준에서의 행동은 아니지만 담론 투쟁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제기하고 관철시키려고 노력하는 존재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한국식 경영과 한국인 관리자의 행태에 대한 노동자들의 담론 형성과 이를 통한 투쟁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5장은 작업장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연결된 두 집단의 입장과 관계를 보다 균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연구라 평가될 수 있다.

90년대 초반에 쓰여진 6장의 주제는 수하르토 체제하에서의 민주화 가능성이 다. 필자는 기능론적 고전이론에 기초하여 민주화를 요구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잠재적 세력의 형성에 주목한다. 야당, 비판적 성향의 엘리트 지식인과 정치인, 비정부조직, 이슬람 세력과 학생 집단 그리고 종교·종족과 같은 사회적 균열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필자는 민주 세력이 취약하며, 체제 내부의 갈등하는 세력들도 체제 유지에 대해서는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수출지향적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증가될 산업 노동자, 시장 경제의 활성화에 따른 시민 사회의 성장, 국민 소득의 지속적 향상과 같은 요인을 통해 필자는 잠재적인 민주화의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가 오랜 기간에 걸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에 민주화의 전망이 어둡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수하르토 정권이 퇴진하고 몇 년이 지난 지금, 민주화에 대한 필자의 전망이 이후의 변화를 적절하게 예견하지 못했음이 명확해졌다. 수 십 개의 정당의 창립, 일상화된 집회,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언론 자유, 일반인의 활발한 정치 참여, 학생조직과 비정부조직의 활성화 등은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미흡하나마 풀뿌리 민주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하르토의 퇴진이 외부 요인

에 의해 촉발되었음은 부정될 수 없지만, 수하르또 퇴진 전후의 상황은 제 사회 세력이 가지고 있던 잠재력이 필자에 의해 정당하게 평가되지 못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글은 불안정한 현재의 민주화 진행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신선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 글에서 분석되고 있는 각 세력들이 현재 활발한 정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의 활동에서 과거로부터 전승된 구조적인 제약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십여 년 전에 쓰여진 이 글은 모든 것이 변화한 듯 보이지만 동시에 커다랗게 변한 것이 없는 현재의 상황을 검토하기 위한 유용한 시각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 책은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는 글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 연구가 걸음마 단계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필자의 연구가 특정 주제에 집중되기보다는 특정 지역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걸쳐 있음은 그리 놀라운 점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필자의 연구 주제를 자세히 검토할 경우, 일정한 시각과 관심이 다양한 연구 주제를 관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치학을 전공한 필자에게 있어 민주화나 산업화의 문제는 즉각적인 관심을 이끌어 낼 주제일 것이다. 인도네시아와 관련하여 이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경제 부문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화인을 간과할 수 없으며, 화인이 처해 있는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경제적 영역에서의 화인의 위상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여섯 편의 글 중 다른 주제와 그 연결성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글은 한국 기업의 노사 문제를 다루는 5장이지만, 이 역시 산업화 및 노동 운동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주제라 할 수 있다. 상호 연결되어 있는 주제에 대한 여러 연구를 종합적으로 조망하고 있는 글이 이 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은 아쉬움을 주지만, 일관된 시각과 관심이 책 전체를 통해 유지되고 있음은 지역 연구가가 취할 수 있는 하나의 연구 방향이 무엇인가를 예시해 주고 있다.

IV.

지역 연구의 정체성과 목표에 대하여 필자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지역 수준에서의 연구는 비교적 시각을 통해 이론의 확립과 수정을 목표로 하는 것이며, 공통의 요소들을 묶어 보편적 개념으로 추상화해내는 개념화, 복수의 개념을 논리적, 경험적으로 연결시키는 가설 설정, 가설의 검증과 과학적 탐구 작업을 통한 이론화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3-4).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고 지역 연구자들이 지역 전문가의 지위에 자족할 경우, 지역 연구는 관점의 편협함과 방법론적 후진성을 낳게 된다(v-vi). 전문가적 지위에 자족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필자는 상술하고 있지 않지만, 이론과 분석에 대비되는 것으로 취급되는 저널리즘적 해설과 추측(3), 기술(34) 및 묘사(42)의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를 일컫는 것이라 추측된다.

필자의 견해에 따르면, 극히 제한된 인도네시아 연구자들만이 보편적인 일반 이론을 추구함으로써 독창적인 이론과 새로운 연구 영역을 개척한 반면, 대다수의 연구자들은 지역적 편협성에 젖어 비교이론적 담론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한다(v). 그 결과, 인도네시아를 다른 국가 혹은 제3세계 일반이라는 보편성과 관련시켜 규명하려는 이론적 연구, 혹은 종속이론, 세계체제론, 국가론, 조합주의, 맑스주의와 같은 접근법을 통해 인도네시아를 분석하거나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는 극히 드물었다고 한다(vi).

이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필자는 맑시즘, 정치경제학적 종합적 접근, 비교종교학적 시각, 기능론적 고전주의와 같은 이론적 틀 내에서 자신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론의 궁극적인 목표가 설명과 예측으로 설정됨으로써(xii-xiii), 분석에 기초한 전망이 각 장에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노동정책의 기본 성격, 즉 억압성이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하고(147), 현재[90년대 초반]의 민주화 전망은 어둡기만 하며(226), 화인이 소수민족의 하나로 공인될 것이라는 추측은 사회의 다원화와 정치의 민주화가 아직도 요원한 권위주의 통치 하에서는 설부른 기대라는(68) 전망이 제시되어 있다.

이론적 접근의 필요성이 이 책을 관통하는 하나의 흐름임은 명백하지만, 이것과는 일치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 있기도 하다. 필자는 지난 20여년 동안 인도네시아 연구에 천착하면서 지켜 온 원칙이 ‘관점, 이론, 방법론에 있어 고정적이고 형식적인 틀에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주유하는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 그 결과 자본가 형성에 대한 연구에서는 맑시즘적 시각이 적용된 반면(5-9), 노동통제에 있어서의 국가의 역할에 대한 연구에서는 맑스주의자들의 해석이 배제되어 있으며(120), 또한 연구 주제에 따라 상이한 이론들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필자가 의미하는 이론이 정치경제적 현상을 총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대 이론이 아님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하나의 의문을 제기한다. 상호연결되어 있는 주제들을 분석함에 있어서 각각의 상황에 따라 상이한 이론이 적용되어야 한다면, 그 이론을 보편성과 일반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정치학 이론에 익숙하지 않은 평자에게 있어 이 질문과 관련되어 흥미를 끌었던 이론은 종합적인 접근법(synthetic approach)이다. 필자의 설명에 따르면, 종합적인 접근법은 결정론적이고 단일변인적 설명을 지양하면서,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 변동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며(ix) 세계 체제, 국가, 사회구조를 관련지어 분석하는 접근법이라고 한다(43). 한편으로 이 접근법은 현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이론처럼 보인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는 특정한 상황 혹은 현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복합적이며,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변인이 검토되어야 함을, 즉 모든 사회의 정치경제적 현상을 공통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인 틀이 존재할 수 없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듯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하나의 이론에 대한 경도를 경계하고 자유로운 주유를 강조하며, 역사적 필연성이나 인과 관계

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203), 이론화 혹은 일반화에 대해 필자가 짐작에 가까운 정도의 애착을 보이고 있는 점은 상당히 흥미롭다. 이는 정치학이라는 이론 중심적인 학문을 통해 지역 연구를 시작한 연구가가 직면하게 되는 과도한 이론과 과도한 사실 사이에서의 갈등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분석과 기술이라는 이분법적 대립 구조에서 보았을 때 이 책에서 나타나는 흥미로운 측면은 여섯 편의 글 중 두 편이 명확한 이론적 분석틀에 기초하고 있지 않으며, 시기적으로 네 편의 글 이후에, 즉 필자가 국내에서 지역 연구가로서 활동한 후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 쓰여졌다는 점이다. 화인의 종교를 다루는 3장에 대해 필자는 문화인류학적 연구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5장에 대해 면접 조사에 기초하여 수집된 자료에 기초하고 있다는 설명을 부가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시각과 자료를 필자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새로운 시도에 나타나 있는 분석 및 서술 방식을 고려해 보면 이론 중심적 관점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필자는 5장의 목적이 노사 관계의 실상과 변화를 직접 확인해 보고 그 문제점을 알리는데 놓여 있다고 기술하고 있는데(150), 이런 식의 표현은 이론적인 틀에 기초한 글에서 사용되는 것과는 명백한 차이를 보인다. 또한, 이론적 글을 서술할 때와 구분되는 표현 양식이 몇몇 부분에 쟁시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필자는 ‘왜 그런가?’ (156), ‘얼마나 억울하고 기가 막힌 노릇인가?’, ‘한국식 경영 방식은 존재하는가?(160)’와 같이 구어체에 적합한 표현을 이용하고 있다. 아래의 인용구에는 이론적인 글과는 구분되는 문체가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이 도급제 노동은 현지 노동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 줄까? 상호부조가 아닌 경쟁 ... 그리고 너무나 대조적인 작업 모습은 매우 비인간적으로 느껴졌다. 이 스웨터 공장 노동자들의 무표정은 도급제 생산방식으로 나타난 자본주의에 의해 밀려날 수밖에 없는 인도네시아의 평등주의적 전통과 문화를 체념한 얼굴 같았다 (167).

‘수천 명에 불과한 이들이 벌어들이는 돈이라는 게 한국인 이미지라는 공공재를 능가할 수는 없다’와 같이 가치 판단이 명시적으로 개입되어 있는 주장이 제기되어 있는 점, 그리고 결론 부분이 독립적인 파트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 역시 이론 중심적인 글과의 차별성을 보여주는 서술 양식이다.

상이한 문체와 서술 양식은 이론적 틀에 기초한 글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자유로운 문체와 형식이 허용될 수 있으리라는 필자의 태도가 투영된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주목할 측면은 5장에 제시되어 있는 분석이 다른 장에 제시된 분석과 커다란 질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이론적 틀의 유무가 자료 분석의 객관성,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는 단일한 기준이 될 수 없음을 보

여준다. 또한, 이는 지역 연구가 이론적인 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 하에 진행된 분석과 지역적 수준의 자료에 대한 서술이라는 이분법적 도식의 경계가 절대적이기보다는 상대적인 것임을 시사해 준다. 즉, 명시적인 이론적 틀의 부재가 분석 틀 혹은 시각의 부재를 의미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화인의 종교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 3장 역시 새로운 연구 영역을 개척하려는 필자의 노력을 돋보이게 만드는 글이다. 화인의 종교적 관행과 믿음의 재해석에 대한 분석은 인도네시아 종교에 관한 연구를 주도해왔던 인류학자들의 문제 의식과 연구 결과와 동일한 선상에 놓여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이 글은 기존의 인류학적 연구와는 대비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인류학자들에 의해 중시되는 종교적 믿음과 관행에 대한 행위자들의 해석과 종교적 행동과 관련된 맥락적인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으로서, 이는 인류학적 연구와 조사 방법에 대한 필자의 이해가 구체적인 연구 과정에서 적절하게 적용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필자의 연구가 문화인류학적 연구로 완전히 나아가지 못한 데에는 분석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의 성격에 대한 학문간의 차이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정치학의 전통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온 필자에게 있어 신뢰할 수 있는 자료는 현지에서 맥락적으로 수집된 자료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인류학자의 것과는 다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인류학적 문제 의식과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분석 과정에서는 상대적으로 거시적이며 탈 맥락적인 자료와 분석 방법이 적용되었다. 이러한 점은 지역 연구에 있어서의 학문간 의사 소통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 십여 년 동안 인문사회과학계에서는 지나친 학문 세분화에 대한 대안으로서 학제간 연구(inter-disciplinary)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동일한 연구 지역을 갖는 지역 연구자들 사이에서 이 문제는 특히 중요한 것이었다. 학제간 연구는 사회문화적 현상의 제 요소를 분리하지 않은 채 총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경우에만 유의미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쉽게 실현될 수 없다. 분과 학문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협력을 의도하는 학제간 연구는 공동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다양한 분과학문에서 왔다는 이상의 의미를 갖기가 힘들며, 많은 경우에 있어 이러한 과정에서 진행되는 학문간 의사소통 역시 제한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화인의 종교에 대한 연구는 사회과학자들이 쉽게 빠져들 수 있는 학문적 편협성을 탈피하기 위한, 그리고 필자가 지향하는 자유로운 학문적 주유와 타학문에 대한 열린 마음을 보여주는 혁신적인 시도라 할 수 있으며, 지역 연구자들이 취할 수 있는 하나의 연구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김형준.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화인류학과 조교수.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192-1. Tel. (033)250-6873(O). E-mail: hjunkim@kangwon.ac.kr